2026
논리논술
megastudy
장진석 논술

step 2

개념어로 정복하는 논리논술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 [논리논술 2]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쉬운 일은 아닐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랠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 J Rabbit 요즘 너 말야

1강 사회체제

문제 **아래 <설명>에 기초하여, <제시문1>~<제시문4>가 묘사하고 있는 사회체제의 특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그 주요 특징을 서술하시오.** (700~800자)

〈설 명〉

경제 체제는 사회적 자원의 생산과 배분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문제로서, 순수한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로 구분될 수 있다. 순수한 시장경제체제가 시장의 역할을 중시함에 비하여 사회적 경제체제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다. 인류 역사에서 근현대사회의 경제체제는 국가별·시대별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이를테면 미국 사회의 경우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전까지는 시장의 역할이 중시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정부 정책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된 경향이 있고, 한국 사회의 경우 미국 사회에 비하여 사회적 시장경제 요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체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계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이념적 축으로 구성된다. 정치체계는 국민 혹은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문제로서,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함에 비하여 민주주의는 복수의 개인들 사이의 평등을 더 중시한다. 순수한 형태의 자유주의가 전체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개개 시민으로서의 천부적 자유 및 그 권리의 발현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순수한 형태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동등한 의사결정권의 발현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시문 1〉

모든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그러나 불완전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등이 존재할 경우, 그 사회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현대국가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해 왔으며, 정부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즉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 제약 조건, 근시안적 규제, 시장경제와 같은 유인동기의 부족, 관료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 빈부격차 및 산업구조의 독과점화가 심화되어, 결국은 그 사회 전체의 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제시문 2〉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 하나의 측면은 공무원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집회·결사의 자유 역시 인정되어야 하는 동시에 근로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에 대한 중립성 등의 보장을 위하여 집단적인 파업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현행 관련 법령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업무를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법원 역시 이와 같은 법령이 공무원의 자유를 일부 침해하더라도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제시문 3〉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복수의 개인들 사이의 평등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상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됨에 동시에 개인들 사이의 평등까지도 보장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불가피하게 희생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두 가지 불가피한 상황, 즉 (1)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만 평등은 보장되지 않는 상황, (2)개인들 사이의 평등은 보장되지만 자유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은 상황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이 (2)보다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불평등과 타인의 특권을 감내해야 하더라도, 국가뿐 아니라 어느 누구의 침해도 없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가하는 편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하는 전체주의적 분위기에서 평등을 구가하는 편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4〉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들의 능력 차이뿐만 아니라 부의 축적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한 사회 내에서의 빈부격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지나친 확대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의 전체적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강제적 가격규제는 비숙련 단순 노동직종을 대체하는 업무 자동화를 더욱 촉진하여,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고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목적이 어떠하든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임금을 정부가 강제로 결정할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2강 성장과 분배

_ 한양대 기출

문제 **(가)에서 제시된 빈부격차에 관한 (나)의 문제의식을 기술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의 관점에서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오. (500~600자)**

(가)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개인 간의 능력 차이와 노력 여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불균형은 필연적이며, 이를 제 3자의 개입을 통해 강제로 조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지식과 능력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참가하는 게임이라고 간주해 보자. 게임의 참가자들이 정당한 규칙 아래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여 승자는 높은 임금을 패자는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 반면에 게임의 결과가 평등해야 하므로 승자와 패자가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산물이다.

(나)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회를 지배하는 공정한 법칙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계급 또는 지위를 차지하고 그 사회에 태어날지 모른다. 이러한 원초적 상태에서는 우리가 공정한 합의와 협상의 결과로써 정의로운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내세울 수 없으며, 특정 공공 정책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초적 상태에서 제안된 공공정책은 무엇을 추구

할까? 타고난 자연적인 자질은 우수한 두뇌를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또한 개인은 서로 다른 사회적 여건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므로, 처음부터 서로 다른 부의 분배를 배정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은 태어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여건에 대해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타고난 조건에 부여되는 경제적 배분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남게 된다.

(다)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을 서로 단절된 개체가 아닌 하나의 유기체 안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인식한다. 특히 유가의 정명 사상은 나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로서 파악한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는 인간 존재의 특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삶을 영위하며 존재 의미를 찾는다. 이 때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 가족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는 개인의 존재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개인의 자유도 공동체의 존재를 통해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공동체와 분리된 존재로서 개인은 존립하기 어렵다.

개인에게 공동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는 하나, 개인이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존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공동체는 개인에게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공동체와 개인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강 국가개입

문제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 대조하고, (다)의 관점에서 그 중 한 입장을 지지하는 논의를 전개하라.**

(800~1000자)

(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은 자유롭게 경쟁한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자신의 몫이 달라지고, 이를 위해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생산성이 그만큼 증가한다. 이렇듯 자유 경쟁에 따라 창의성과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간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의 분열과 사회 구성원 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모두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며, 현대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사회보장정책,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실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렇듯 복지 제도는 분배 정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나)

서구 사회에서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극한적인 빈곤과 기아로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는 오래전부터 공동체의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우선 이러한 필요를 공급했던 지역시설들은 도시의 성장과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이 과거의 근린유대

(近隣紐帶)를 해체시키면서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은 국가적으로 조직되어야 했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특수기관들이 만들어져야 했다. 현재 우리가 공적 부조, 또는 공적 구제로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과거의 빈민법이 현대적 조건에 적응한 것일 뿐이다. 산업사회에서 그러한 시설의 필요성은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가장 일관된 자유의 수호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

이전 시기의 사회적 문제들은 부의 성장으로 점진적으로 사라지지만, 우리가 도입한 치료방법은 모든 미래의 개선이 의존하고 있는 계속적인 성장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 비록 우리가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조금은 빠르게 정복할 수는 있을지라도, 인플레이션, 과중한 조세, 교육에 대한 점증하는 정부의 지배, 지나치게 자의적인 권력을 지닌 사회 서비스 관료로부터 주요 위험들이 분출할 때 앞으로 우리는 이 싸움조차 잘해 나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할 수도 없으며, 과도하게 확대된 정부기구의 힘은 그것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증가시키기 쉽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다)

최소한의 정부에서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 로크와 칸트의 전통을 이어받은 롤스(John Rawls)는 모든 개인적 조건들을 잊게 하는 '무지(無知)의 베일'이라는 가상적 장막을 제안한다.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연적 능력과 성격, 사회에서의 위치, 태어난 역사적 시기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

칙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정원사인지, 대기업의 사장인지, 권력을 가진 정치가인지, 또는 환경 운동가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개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게 할 것이고, 다음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사회에서 가장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재화를 불평등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과 환경에 상관없이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혜가 베풀어져야 한다. 물론 자유의 보장이 이익의 보장보다 근본적이다. 즉 자유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는 없다.

\-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교과서

4강 개인과 집단

__ 중앙대 기출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500~60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제시문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가)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500~600자]**

(가)

상상해봐, 천국이 없다고
노력하면 너무 쉬워
우리 밑에 지옥도 없다고
우리 위에는 하늘뿐이라고
상상해봐,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산다고

상상해봐, 어떤 국가도 없다고
그건 어렵지 않아
누구도 그 때문에 죽이거나 죽지 않고
또 어떤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다고

넌 날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언젠가 네가 우리와 함께하길 바래
그러면 세계는 하나가 되겠지

상상해봐, 어떤 사유(私有)도 없다고
넌 상상할 수 있을 거야
탐욕도 굶주림도 없다고
모두가 형제라고
상상해봐, 모든 사람들이
세계를 공유한다고

넌 날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언젠가 네가 우리와 함께하길 바래
그러면 세계는 하나가 되겠지

(나)

자유주의자의 가장 기본적 주장은 개인 자유의 보장이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를, 개인 자유의 보장을 사회의 기본 원리로 보는 주장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자유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이며, 인간 개인만이 궁극적 가치를 갖고 있고 국가, 조직, 이념 등 나머지 것들은 모두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으며, 오직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위해 개인을 도구화하여 희생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이 사상은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개인은 사회생활에서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타인의 간섭이나 지원 없이 각자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하여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직 자신에게 귀속됨이 당연하다. 즉, 자기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는 자신이 향유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도 홀로 책임져야 한다.

이 사상가들은 인간적 자기실현의 다원적 모형을 전제하는 만큼, 개인적 자율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다양한 모형 개발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개방적인 사회통합체를 내세우며 이러한 다양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회구조를 옹호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질서에서는 옳은 것이 좋은 것에 선행하며 이로 인해서 '얇은 공동체'(shallow community)만이 용납된다.

(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춤추고 싶으면 춤을 출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존재라면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 의지와 공동체의 규범 또는 이익 사이에 긴장이 빚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연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남들과 함께 있는 공공장소에서라면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의 묘지 크기도 1인당 평균 주거 공간의 서너 배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하게 제약될 수 있으며, 개인들의 욕망과 가치, 신념 등은 사회 속에서 표출되고 실현될 수밖에 없다. 사회와 격리된 개인은 생각할 수 없듯이 개인 없는 사회도 있을 수 없다. 즉 사회는 개인들의 행위와 상호 작용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발전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삶 속에서 개인의 욕구나 가치관이 타인의 그것과 대립하거나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공동체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하기 나름이다.

(라)

인간의 유일무이한 개성은 자연과 의지 그리고 운명이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여 만든 것으로서 모든 인간관계의 자명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똑같이 생긴 쌍둥이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한 심기를 느끼게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개성의 말살은 법적, 정치적 인간의 분노와 도덕적 인간의 절망보다 훨씬 강렬한 전율과 공포를 야기한다. 실제로 강제 수용소의 경험은 인간이 인간적 동물 종의 표본으로 바뀔 수 있고 인간의 천성은 인간에게 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상황에서만 인간적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용소는 사람들을 말살하고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릴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기

술적으로 통제된 조건에서 인간 행동의 자발성 자체를 제거하고 인격을 단순한 사물로 만드는 무서운 실험실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발성은 그것이 인간의 자유뿐만 아니라 삶 자체, 즉 단순히 살아있다는 의미에서 삶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한 완벽하게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 수용소의 경험과 같이 철저한 자의성과 독단성은 어떤 압제권력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부정한다. 압제권력 하에서 의견의 자유는 자기 목숨을 걸만큼 용감한 자들에게만 허용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반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형벌만을 초래한다면 그런 자유는 무효가 된다.

(마)

판옵티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반지 모양의 원형 건물 안마당 중심에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여러 개의 큰 창문이 뚫려 있고, 반지 모양의 원형 건물은 독방들로 나뉘어져 있다.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 뒷면까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항상 빛이 통과하고 있다. 중앙의 탑에는 지그재그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죄수를 한 사람씩 감금한다. 중앙의 탑은 빛이 차단되어 있어서 감시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수감자들은 역광에 의해 언제나 환하게 모습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밝은 빛은 감시자로 하여금 죄수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교묘한 통제의 방식이다. 이제 감시자는 훨씬 수월하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시성의 상태가 바로 함정이 된 것이다.

판옵티콘의 작동방식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규율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지속적이고 철저하며 어디에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면서 자신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감시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판옵티콘이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배방식으로 떠오른 규율은 신체의 소유관계에 바탕을 둔 노예제와 다르다. 주인의 독자적인 의지와 변덕의 형태로 유지되는 주종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노예제와 봉건제는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로 전락했다. 이 제도들보다

크고 유익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규율권력의 세련됨이라 할 수 있다.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권력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아 일견 겸손하고 세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과시적 권력보다 한층 더 교활하고 무서운 권력이다. 이 메커니즘 덕분에 권력은 절대 왕정 시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될 수 있었다.

(바)

현대 사회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비가시적이거나 가상적인 구조를 통해 권력을 조직한다. 통제의 모델은 물리적인 신체에 대한 암묵적인 감시의 모델이라기보다는 모든 정체성이 데이터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가상적인 '데이터감시'의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모든 정체성은 데이터 이미지로 구성된다. 디지털 문화 환경에서 개인성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통제 하에 놓인 실제적인 정체성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성은 각 개인의 데이터 이미지를 규정하는 통계상의 변수들에 의해 유지된다. 데이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통제하는 행위는 현대 사회에서 권력이 실행되는 기반이 된다. 왜냐하면 데이터 이미지는 한 개인이 속한 경제적 지위와 국가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권리들이나 재원들, 그리고 특권들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개인적 신용상태에 대한 접근까지도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에서, 신체는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이동적이다. 실로, 신체나 정보의 제한 없는 이동성은 현대 사회에서 자유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러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매개된 모든 운동과 행위는 문서화와 전자 등록에 속한 하나의 전자 흔적을 남긴다. 전자 발찌가 채워진 죄수들처럼, 전자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추적되고 기록된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족적은 달팽이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따라다닌다. 이런 방식으로, 현대 사회는 아무리 많고 빠른 탈주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권력의 지형 속으로 녹아들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5강 분리와 통합

_ 한국외대 기출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기술하고, 공통점을 밝히시오. (4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를 바탕으로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500자 내외)

문제 3
① (자료 5)의 요지를 밝히고, (200자 내외)
② (자료 5)를 바탕으로 (자료 6)에 대해 예상되는 사원의 반응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자료 1)~(자료 4)를 활용해 논술하시오. (400자 내외)

〈제시문 A〉

When the legislative[1] and executive powers are united in the same person, there can be no liberty; because people may have fear that the same monarch would enact[2] and execute laws in a tyrannical manner. Likewise, there would be no liberty, if the judiciary[3] power were not separated from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Were it joined with the legislative, the life and liberty of people would be exposed to arbitrary[4] control; for the judge would be then the legislator. Were it joined to the executive power, the judge might behave with violence and oppression.

[1]입법(立法)의, [2]법제화(法制化)하다, [3]사법(司法)의, [4]자의적(恣意的)인

〈제시문 B〉

나는 꿈속에서 많은 것을 감각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나중에 실제로 감각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유(思惟)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만이 나와 분리될 수 없다. 나는 분명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얼마 동안? 내가 사유하는 동안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유하기를 멈추자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 나는 단지 하나의 사유하는 것(res cogitans)이다. 즉 정신, 영혼 또는 이성일 따름이다. 그리고 사유하는 것만이 내 본성 혹은 본질에 속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내 본질이 오직 사유하는 것임을 정당하게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나와 결합되어 있는 신체를 갖고 있을지라도, 한편으로 내가 오직 사유하는 것이고 연장(延長)된 것이 아닌 한에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물체가 오직 연장된 것이고 사유하는 것이 아닌 한에서 물체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으므로, 나는 내 신체와는 다르고, 신체 없이 현존할 수 있다고 단언하게 되는 것이다.

- 데카르트, '성찰'

[자료 1]

모든 인간 집단에는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한편으로는 자기중심주의, 즉 '지방근성(地方根性, localism)'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교류성(交流性, intercourse)'이 있다.

한 언어 공동체가 자신의 고유한 전통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지방근성에 의해서이다. 언어 습관은 한 개인이 유년 시절에 습득한 최초의 습관이란 점에서 강한 힘과 지속성을 지닌다. 만일 이 습관들만 작용한다면 그 지방 언어의 특수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 힘의 영향은 이와 반대되는 또 다른 힘의 작용으로 수정된다. 지방근성이 사람들을 한 곳에 정착하게 하는 반면, 교류성은 서로를 소

통하게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떤 마을에 다른 지역의 사람이 방문하고, 축제나 장날에 주민의 일부가 왕래하고, 또 여러 지방 사람들이 한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이다. 요컨대 교류성은 지방근성의 분리 작용을 막는 통일성인 것이다.

그러나 지방근성을 개입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교류성에 귀결시킬 수도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A라는 지역의 특정 요인 α는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모든 마을에 공통된다 하겠는데, 자기중심적인 힘은 A와 이웃한 B를 A가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B도 A를 모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교류성 역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 지역의 요인 α를 구성하는 여러 특징(α_1, α_2, α_3 등) 사이에 이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한된 지역에서도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나타난다.

-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자료 2]

보통 '뭉치면 산다'는 게 널리 통용되는 수사다. 기업도 마찬가지. M&A(인수합병)는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 증가,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와 중장기적으로 관련기업의 수익을 늘려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게 상식이었다. 실제 우리뿐 아니라 미국 증시의 상승 단골 메뉴가 바로 M&A이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고 한다. 오히려 흩어져야 주가가 오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전에는 과잉 소비 수요로 인해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글로벌 소비 수요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은 스핀오프(spinoff, 분사·분할)가 주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스핀오프의 약효가 M&A보다 뛰어난 배경도 설명했다. 기업이 M&A를 통해 규모가 커지면 속성상 변하는 기업환경에 순발력 있게 대처해 나가기 어렵고, 기업이 여러 업종에 진출해 있으면 한쪽에서 발생한 이익을 부실한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려우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진도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집중력을 갖춰야 하는데 사업 분야가 많으면 현

실적으로 이를 구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스핀오프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 ○○일보

[자료 3]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유럽의 기원은 멀리 로마제국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제국은 북쪽으로 네덜란드, 남쪽으로 북아프리카, 동쪽으로 터키, 서쪽으로 영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면서 각 지역 간 물자를 교류시키고 문화를 전파하였으며, 유럽을 하나의 정치제도와 계급구조를 갖는 사회로 만들었다. 로마가 닦아 놓은 도로를 따라 로마의 문화와 기독교가 유럽의 곳곳으로 퍼져 나갔고, 이후 유럽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 하나의 정신적·문화적 공동체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중세의 '통합된 공동체'는 르네상스와 함께 붕괴되어 갔고, 유럽은 수많은 정치적 단위로 분열되었다. 예컨대, 비스마르크의 통일 이전 독일 지역은 400여 개의 군소 국가로 나뉘어 있었다. 분열과 함께 국가 간 전쟁도 끊이지 않았으며, 유럽의 국경선은 언제나 변화해 왔다. 이러한 분열과 다툼은 역사적으로 어느 한 국가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는 경우 그 군사력에 의해 유럽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곤 하였다. 나폴레옹의 유럽정복이라든지 히틀러의 제국 건설의 꿈은 모두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군사적 수단에 의한 통합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전쟁을 통해 유럽인들은 진정한 통합의 필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와 민족적 자부심을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비판하고, 유럽을 하나의 이해관계 속에 묶어 놓음으로써 평화를 보장받고 공통의 이해관계 속에서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 통합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 강원택·조홍식, '유럽의 부활'

[자료 4]

살림해 본 사람은 안다. 안팎 양면으로 입을 수 있어 좋다는 리버

서블(reversible) 점퍼를 사도 실제론 한쪽으로밖에 못 입는 수가 많다는 걸. 자주 입는 쪽의 목둘레나 소매 끝이 닳거나 더러워지는 통에 뒤집어 입기 어려운 탓이다. 결국 욕심내다 돈만 더 쓴 꼴이 되기 일쑤다. 다양한 용도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지만 알고 보면 그 복합성이 별 필요 없는 건 리버서블 의류에 국한되지 않는다. 작은 컴퓨터나 다름없다는 5G 휴대폰이나 만능 쿠커라는 고가 전기밥솥도 알고 보면 괜히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사치품에 불과한 수가 수두룩하다.

제품마다 신기술을 강조한 부가 기능을 넣는 게 대세더니 근래엔 핵심 기능만 강화하고 나머지는 뺀 '디버전스(divergence)' 제품이 뜬다는 소식이다. 이것저것 좋다며 추가해 값을 올린 것보다 꼭 필요하지 않은 기능은 생략해 가격을 낮춘 단순 제품이 인기라는 것이다. 불황의 여파라지만 실은 추세 변화일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나왔다. 기업들이 그간 추구해 온 다기능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이것저것 파악하느라 힘든, 이른바 기능 피로를 일으켜 오히려 구매 회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앞으론 더하기보다 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 ○○신문

[자료 5]

민주주의는 다수자 의사(意思)의 무조건적 지배를 바라지만,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의사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자 의사에 대하여도 자기를 주장할 가능성을 요구한다. 자유주의에 있어서 국가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은 개개인의 인권·기본권·자유권, 즉 그의 자연적·전(前)국가적 자유의 일부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서 국가로서의 임무와 정당성을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기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면서 국가 안에 자리 잡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개개인은 그의 전(前)국가적 자유를 부단히 국가사상 즉 다수자 의사의 처분에 위임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다수자 의사의 형성에 관여할 가능성만을 갖는다.

- 라드부르흐, '법철학'

[자료 6]

〈회람(回覽)〉

조국(祖國)의 번영(繁榮)과 사(社)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不撤晝夜) 산업 일선(一線)에서 분투노력(奮鬪努力)하시는 사우 각위(社友各位).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우리 동림산업의 기개(氣槪)를 대외에 과시(誇示)함은 물론 사우 간에 일체감을 조성하여 단결력을 더욱 공고(鞏固)히 하는 데는 무엇보다 마땅히 제복(制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沸騰)하여 왔던바, 회사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동림 가족 여러분의 충정(衷情)어린 권고와 건의를 그간 예의(銳意) 검토하신 사장님께서는 금번(今番) 이를 십분(十分) 인정하시어 가칭 사복제정준비위원회(社服制定準備委員會)를 발족(發足)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우 여러분께서도 주지(周知)하시다시피 사복이 그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산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직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똑같은 제복을 착용하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타 부서에 비해 현격(懸隔)한 단결력을 발휘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바 그 공로가 컸으며 여사원들은 부서에 관계없이 일찍이 제복으로 통일함으로써 단아(端雅)한 용모,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웃으면서 일하는 직장을 건설해 왔거니와, 이제 제복에서 소외되었던 남직원들까지 사복을 착용(着用)하게 되니 이는 누구나 다 함께 경하(慶賀)해 마지않을 일로서 각과(各課) 과장을 통해서 사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탄(忌憚)없는 조언(助言) 있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사장님 명(命)에 의하여, 기획실장 백(白).

- 윤흥길, '날개 또는 수갑'

논리논술2

6강 절대성과 상대성 보편성과 특수성

_ 이화여대 기출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두 글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00~600자)**

(가)

어떤 집단에 소속된다고 해서 반드시 민족 정체성이 손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동료집단이나 종교에 대해 갖는 소속감이 민족 감정과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족이나 종교와 관련한 정체성이 배타적인 성향을 띨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진적 다문화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민족 감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체성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다양한 문화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창조물이다. 종족이나 민족 어떤 경우에도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특정한 민족 공동체가 지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물론 정치적 차원에서 억압 받는 집단을 보호하려는 다문화주의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 공동체 전체가 그 노력을 지지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사회정의의 관념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한다.

'세계주의적 민족(cosmopolitan nation)'은 적극적인 민족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민족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과거의 민족 개념은 대체로 타 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오늘날 세계주의적 민족 개념은 협조적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다양한 민족 감정의 공존을 받아들이되 모든 민족 감정을 포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 정체성은 보다 개방적이고 성찰적인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민족과 그들의 열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경계선을 넘나들며 꾸준히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오늘날 민족 간의 경계선이 더욱 불분명해지는 와중에 민족자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 기존의 민족정체성을 재구성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어렵

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득력 있는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세계화 시대에 이상적인 다문화사회가 가능해지려면 세계주의 시각이 필수적이다. '세계주의적 민족주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독일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세계주의적 민족주의와 관련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혈통주의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해 온 독일은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자국 시민들의 민족 감정을 유지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주의적 민족주의가 비록 이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세계 질서를 고려할 때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의 충격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전통적인 국가주권의 속성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는 국가 간의 연대감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시민사회가 등장함으로써 과거의 민족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나)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s currently exceeded the one million mark, over two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Despite the sharp increase of the immigrant population, no one has a clear idea about how to manage all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foreign cultures. Decades ago, the U.S. seemed to provide an answer. It was that of the "melting pot," a society like a pot of stew. Within the stew, the meat and vegetables give each other a bit of their own flavors to create a new one. Likewise, in such a social climate, different people made their own contributions to American culture, and made every effort to come together.

More recently, however, the situation has changed. No longer are all U.S. citizens called Americans, but they are Italian-Americans, African-Americans, Hispanic-Americans, and so on. Recent immigrants in the U.S. have begun to stick with groups that share similar cultural origins. They resist assimilation, worrying that it

will make them lose their identities. Then, what is the alternative to assimilation? Some say that the "salad bowl" of so-called multiculturalism is a good model for immigrant countries. In a bowl of freshly tossed salad, all the elements are mixed together, almost preserving their shapes or flavors. Together, however, they make up a unity in diversity. The typical example of the salad bowl is that of Canada. The Canadian culture for immigrants encourages them to maintain their unique identities, even though all the different ethnic groups are mixed in one society. Learning to respect others' cultures and traditions eventually will help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better understand one another.

문제 2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관용'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500~600자)**

(다) 관용(寬容)이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과 행위 양식을 존중하고 승인하는 태도를 말한다. 자신이 아무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신념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관용의 전제 조건이다. 나아가 관용은 모든 것을 관대하게 대하는 중립적 관찰자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존재 안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관용은 어떤 인간도 결코 오류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통찰과 모든 사람은 자기 관점에 얽매일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관용의 범위에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관용의 정신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를 가리켜 '관용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아무 제약 없는 관용은 반드시 관용의 소멸을 불러온다. 우리가 관용을 위협하는 자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그리고 불관용의 습격으로부터 관용적인 사회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회와 관용 정신 그 자체가 파괴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의 이름으로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를 천명해야 한다.

물론 합리적 논증과 공중(公衆)의 의견을 통해 불관용을 감독할 수 있다면 굳이 억압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관용을 위협하는 자들은 합리적 논증을 제시하는 대신 다른 모든 논증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의 합리적 논증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먹과 권총을 사용하여 그에 대응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므로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만 한다. 살인, 유괴 또는 노예무역을 범죄로 간주하듯이 우리는 편협함과 박해를 선동하는 불관용 또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라) 자유주의 사회를 넘어 만민법(Law of Peoples)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그렇지 못한 사회의 시민들을 어느 정도까지 관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군사•경제•외교적 수단을 포함한 정치적 제재 조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 아니라,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사회도 '만민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민사회의 구성원은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데, 여기에는 시민성의 의무, 즉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자유주의 사회는 우호 관계에 있는 모든 시민과 협력하고 그들을 원조해야 한다. 만약 모든 사회가 자유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강하게 내세운다면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적절한 관용을 베푸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다. 설혹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할 만한 방식으로 관용을 베푸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는 종교, 철학, 도덕 등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포괄적 교리(comprehensive doctrines)'를 존중한다. 이러한 포괄적 교리가 합당한 '정의'와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관념에 부합되기만 한다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논리를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들 사회의 기본 제도가 정치적 권리와 정의의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만민사회의 합당하고 정당한 법을 존중하도록 한다면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그러한 사회를 관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비(非)자유주의 사회를 '적정 수준의 사회(decent society)'로 부르기로 하자.

만약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모든 사회로 하여금 자유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강요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에 대하여 정치적 제재를 부과한다면 적정 수준의 사회는 적절한 정도의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된다. 모든 사회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이는 적정 수준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적정수준의 사회가 스스로 개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사회들을 만민사회의 선량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적정 수준의 사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사회의 시민들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적정 수준의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와 동일하지도 않고 자유주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사회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는 서로 다른 사회의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만민사회의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 3 **다음 인용문의 '코끼리'에 대한 생각과 관련하여 제시문 (마)와 (바)의 타자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시오.**

(600~700자)

인 용 문

낯설고 신기하며 기이하고 괴상한 사물을 구경하려거든 먼저 코끼리를 보는 것이 좋으리라. 내[연암 박지원]가 이곳 열하(熱河)에서 코끼리를 보니 두 어금니[상아]는 한 발 남짓이나 되고 코는 더욱 길다. 그래서 코끼리 코를 주둥이라 하고 다리가 다섯이라고 하는 자들까지 생겼다. 사람들이 흔히 털끝같이 작은 것도 하늘의 이치가 아닌 것이 없다고들 하지만 하늘의 이치를 어찌 쉽게 알 수 있겠는가? 어떤 이가 "짐승에게 이빨을 주어 먹이를 씹어 먹게 한 것은 하늘의 이치지요. 새와 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주둥이로 먹이를 먹습니다. 학은 다리가 길어서 목과 부리를 길게 해 준 것입니다. 닭의 다리를 학처럼 길게 하였더라면 닭은 뜰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대가 말하는 하늘의 이치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하는 이치지요. 만약 하늘이 이빨을 준 까닭이 반드시 먹이를 씹어 먹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저 코끼리의 어금니는 오히려 먹이를 씹어 먹을 때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니 미처 대꾸하지 못했다. 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코끼리도 저러한데, 더구나 천하에는 이보다 알기 어려운 사물이 얼마나 많은가!

(마) 다른 문화로 접근하면서부터 번역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데 다른 문화의 언어를 번역할 때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오역은 없는가의 차원을 넘어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용어나 개념은 다른 문화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비슷해 보이는 용어나 표현일지라도 원어와 번역어 사이의 의미 차이가 매우 큰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공백이야말로 다른 문화를 번역하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다. 예컨대 동양을 소개했던 서양인의 저술에는 친숙한 것과 이국적인 것이 공존한다. 동양은 '서양의 어떤 모습과 닮았다'는 점에서는 친숙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는 익숙한 면보다는 멀고 낯설며 이국적인 면이 우세했던 것 같

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버턴(R. F. Burton)의 번역서 천일야화(The Arabian Nights) 가 지닌 매력은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로맨스와 이국적 정서의 베일에 싸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치 '아라비아 사람이 영어로 썼을 것 같이' 동양적 운치와 중세 아라비아인의 순수함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이 작품은 서양인에게는 독창적으로 보이며 아주 멋지게 여겨지는 수천 가지 단어와 표현을 담게 되었으며, 아라비아에서는 상투적으로 사용되었을지 모르는 그런 표현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대해서는 사정이 달랐다. 당시 인도에 대한 묘사를 보면 동질적이고 익숙한 것이 이질적이고 이국적인 것을 일찌감치 대체한 듯 보인다. 17세기와 18세기 동안 영국인들은 점점 더 동양적 느낌에서 벗어난, 서양인의 경험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 인도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서양인의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으며, 인도의 이국적 성격에서 나오는 도발적인 면은 매우 한정된 범위 안에서 유지되었다.

(바)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세계와 관계해야 한다. 그 세계는 '너'의 세계와 '그것'의 세계로 나뉜다. '나'와의 진정한 만남을 계속하며 '나'를 형성시켜 주는 '너'의 세계는 그 어떤 그물로도 사로잡을 수가 없다. 반면 에 '나'를 사물처럼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것'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다. 곧 '너'는 '나'와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존재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격적 만남이 불가능한 사물로서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것'이었다가 하나의 '너'로 다가올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객관적 요소는 '그것'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징이다. 이 특징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세계를 중시하여 '우리가 살아보지 않으면 안 될 세계',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세계' 또는 '우리에게 온갖 자극과 흥분, 활동과 지식을 주는 세계'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의 세계에 갑자기 '너'가 출현하는 순간이 온다. 그것은 마치 지금까지 들어 본 적도 없는 서정적이고 극적인

에피소드와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 돌연히 나타난다. 이러한 순간은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기이한 매력을 풍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벗어나 때로는 극단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일상이라는 담장이 무너지면서 만족하기보다는 후회할 수도 있다. '너'와의 벅찬 만남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마침내 결별하여 일상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면 차라리 '너'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한편 '그것'의 세계와 결탁하여 '너'를 오로지 이용과 소유의 대상으로 삼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너'를 여지없이 짓밟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마주한 세계를 전체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조각내어 관찰하려 한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편리대로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의 본질이란 알고자 하는자와 알려지는 자가 서로 인격적으로 마주 볼 때 비로소 드러난다. 물론 알려는 자가 '너'를 하나의 물질적 대상으로 파악하여 '그것'의 세계 속에 던져 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을 때의 '너'는 단순한 물건이나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성을 지닌 존재였으리라.

◯ 선생님 예시답안

네 개의 제시문은 경제체제로서 순수한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정치체제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1〉은 사회적 시장 경제체제를 설명한다. 사회적 경제체제는 시장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에 의한 시장 조정이 시장 실패로 인한 빈부격차와 독과점을 막아 사회 전체의 효용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제시문 4〉는 순수한 시장 경제체제를 설명한다. 순수한 시장 경제체제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시장 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시문 2〉는 민주주의의 정치체계를 설명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권리 보다는 의무와 평등을 중시한다.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이 국민 전체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에 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평등을 전제로 한 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3〉은 자유주의의 정치체계를 설명한다. 자유주의는 의무와 평등 보다는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다. 개인의 자유와 시민 전체의 평등은 모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지만, 이 중 하나가 제한되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면, 불평등과 타인의 특권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736자)

◯ 선생님 예시답안 ① [결대소결]

(나)의 관점으로 볼 때, (가)의 태도는 정의롭지 않다. (나)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며, 빈부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필연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 3자의 개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차등적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의 주장은 타고난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불평등을 인정하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을 부정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

소득의 재분배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성장과 분배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때, 개인은 사회 내에서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 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분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공정한 경쟁의 환경이 만들어질 때, 개인의 성장이 보장될 수 있고 이는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위한 분배와 개인의 이익 추구를 통한 경제 성장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656자)

◯ 선생님 예시답안 ② [소대결]

(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필연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개인의 차등적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은 정당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 3자의 개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타고난 조건부터 불평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분배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개입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며, 빈부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사회 정의에 부합된다. 그러므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을 부정하는 (가)의 태도는 정의롭지 않다.

소득의 재분배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성장과 분배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때, 개인은 사회 내에서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 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분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공정한 경쟁의 환경이 만들어질 때, 개인의 성장이 보장될 수 있고 이는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위한 분배와 개인의 이익 추구를 통한 경제 성장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659자)

◯ 선생님 예시답안

(가)와 (나)는 모두 자유 경쟁이 보편화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가)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전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는 빈곤과 기아를 구제하는 공동체적 의무는 오래 전부터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고, 빈민구제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도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와 (나)는 국가의 개입 정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가)는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불균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양극화로 인한 사회의 분열을 일으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분배 정의를 실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나)는 지속적인 성장에 위협을 가하는 과도한 국가 개입을 비판한다. 빈민 구제를 위한 국가의 지원은 타당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국가의 개입은 인플레이션, 과중한 세금, 교육에 대한 지배 강화, 관료들의 자의적 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국가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의 입장은 (다)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다)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함을 전제로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존권 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최소 수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재화를 불평등하게 분배해 주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우선이므로 분배의 정의를 우선에 두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 역시 분배 정의를 통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주장한다. 자유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은 분배 정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996자)

◯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공통적으로 '자유'의 가치와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는 무제한적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화자는 국가와 종교, 사유 등 세상의 모든 제도와 이념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야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개인의 권리로서 자유에 대한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자유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외부적 개입은 최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는 일정정도의 개인의 자유 제한을 주장한다.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와 공동체의 공공선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한 사회를 묘사한다. 인간의 자발성을 제거하고 인격을 단순한 사물로 만들어 버리는 체제 하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와 (나)는 개인의 자유를 집단의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반면 (다)와 (라)는 집단의 가치를 개인의 자유보다 우위에 둔다. <u>이와 같이 한 사회 혹은 공동체에서 자유의 의미와 가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u>. (565자)

〔**결론 부분** :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적 보장, 최대한 보장, 일정정도 제한, 자유의 말살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감시와 통제는 사회적 권력으로서 작동되며 그 방법은 시대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와 (바)는 감시와 통제의 방법과 범위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마)의 경우, 감시 대상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바)의 경우에는 감시 대상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마)는 물리적 공간에서 신체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반면, (바)에서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데이터 이미지를 통해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의 무제한적 자유의 추구는 실현 불가능하다. 현대 사회에서의 보편화된 감시와 통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여 권력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가)에서 추구하는 국가와 종교 등 세상의 모든 제도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의 추구는 현대 권력의 속성을 간과한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541자)

◯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A〉는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이 각각 분리되어야 국민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폭군이 등장할 수 있고, 사법권과 입법권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의적인 통제가 가능해지며, 사법권이 행정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폭력과 압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B〉는 '나'는 사유하는 정신과 통합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사유는 '나'의 본질이자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사유와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신체는 사유하는 것이 아닌 연장된 것일 뿐이기에 '나'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나'와 신체는 분리가 되든 결합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제시문은 모두 '분리'와 '통합(결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396자)

[문제 2] 유형 ①

(자료1~4)는 분리와 통합에 대해 서술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자료1, 3)은 통합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자료 2, 4)는 분리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자료1)에 따르면 지방근성은 분리를 지향하는 힘이며 교류성은 통일을 지향하는 힘이다. 지방근성은 이를 포괄하는 교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성만으로도 모든 언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자료3)에 따르면 유럽 각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통합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전쟁과 분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안정과 번영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지금의 유럽 통합을 가져왔다.

반면, (자료2)에 따르면 과거에는 통합을 의미하는 M&A가 기업의 지향점이었다면, 지금은 분리를 의미하는 스핀오프가 기업이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료4)에 따르면 과거에는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부가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핵심기능만 남겨놓은 단순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530자)

[문제 2] 유형 ②

(자료1~4)는 분리와 통합에 대해 서술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자료1, 3)은 통합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자료1)에 따르면 지방근성은 분리를 지향하는 힘이며 교류성은 통일을 지향하는 힘이다. 지방근성은 이를 포괄하는 교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성만으로도 모든 언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자료3)에 따르면 유럽 각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통합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전쟁과 분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안정과 번영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지금의 유럽 통합을 가져왔다.

반면, (자료 2, 4)는 분리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자료2)에 따르면 과거에는 통합을 의미하는 M&A가 기업의 지향점이었다면, 지금은 분리를 의미하는 스핀오프가 기업이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료4)에 따르면 과거에는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부가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핵심기능만 남겨놓은 단순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527자)

[문제 3]

민주주의가 다수의 통일적 의사를 따르는 것이라면, 자유주의는 다수에 대해 개인의 독립적 의사도 때로는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전국가적 자연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보는 데 반해, 민주주의는 개인의 전국가적 자유를 국가에 위임하며 그 대가로 국가의 의사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얻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수 의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적 성향의 사원은 회사의 일괄적 제복 착용 제안을 수용할 것이다. 제복 착용은 회사 내 다수의 여론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료 1)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성은 분리작용을 막는 힘이 있고, (자료 3)의 유럽 통합 사례처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원들의 통합은 번영의 토대가 되므로 제복 착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개인 의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원은 회사의 일괄적 제복 착용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제복 착용은 회사원이기 이전의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료 2)와 (자료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사원에 대한 동일한 복장의 착용은 동질화를 강요해서 각 부서마다의 특성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621자)

◯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

두 제시문은 다문화주의를 미래사회의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다문화주의는 세계화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주의는 특정한 민족 공동체가 지배적인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는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진 민족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순수 혈통을 가진 민족 공동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의 적절한 대안은 세계주의적 민족 개념이다. 이 개념은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측면에서 민족 정체성을 파악한 과거의 민족 개념과 달리, 협조적이고 개방적인 측면에서 민족 정체성을 파악한다.

반면, (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다문화주의가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까지는 모든 민족이 하나로 동화되는 미국이 대안으로 보였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각각의 민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며 동화에 저항한다. 따라서 캐나다처럼 각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성 속의 통합을 지향하는 다문화주의 사회가 바람직한 모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571자)

[문제 2]

(다)와 (라)는 모두 자신과 다른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용의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제시문이 말하는 관용 개념은 적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는 (라)에 비해 관용의 범위를 더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다)는 모든 인간이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에게 관용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무제한의 관용'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관용 정신 자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면 (라)는 (다)에 비해 관용의 범위를 더 넓게 인식한다. 자유주의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앞서있다고 보고,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상적인 만민사회를 위한 핵심 요소가 관용이기 때문에 관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유주의 사회 중에서도 합당한 정의와 공적 이성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사회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용을 통해서 이러한 적정 수준의 사회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562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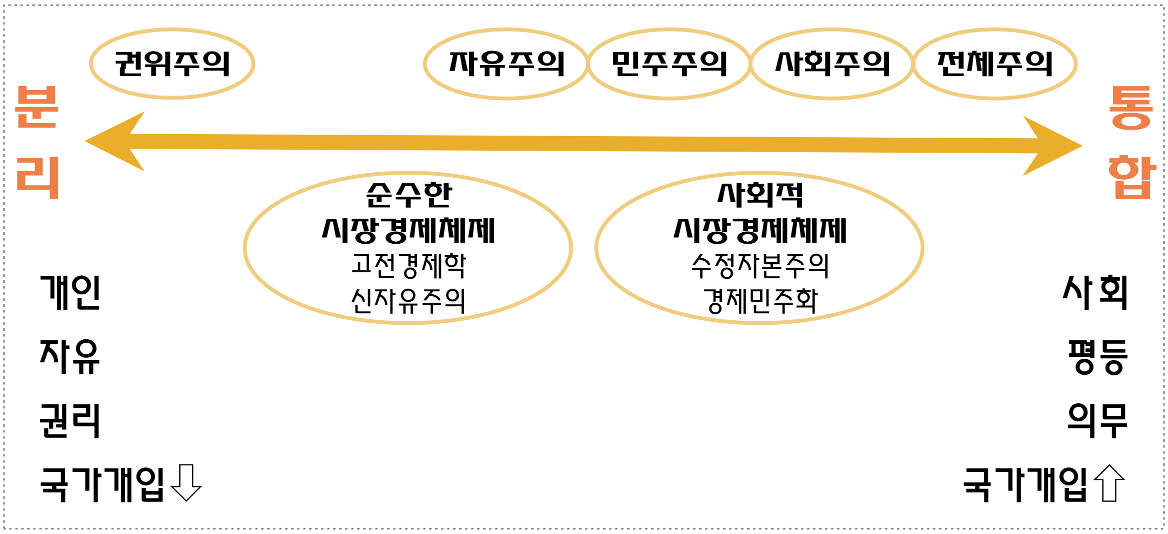
[문제 3]

(마)의 영국인들은 타자를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의 화자는 타자를 자기중심적 편견 없이 그 자체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에 따르면 서양인들의 동양 인식에는 변화가 있었다. 천일야화의 번역서를 보면 서양인들도 처음부터 동양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만 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게 되면서 인도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인식만이 보인다. 서양의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인도의 고유한 특징을 거의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코끼리의 이빨은 다른 동물의 이빨과는 그 용도가 다름을 알지 못하면서 모든 이빨의 용도는 다 같다고 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바)는 타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바)에 따르면 우리가 타자를 우리의 마음대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타자를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타자를 인격이 아닌 사물로 대하게 된다면, 타자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타자를 '너'로 받아들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편견을 버리고 타자의 고유성 그 자체를 인정해야한다. 이는 코끼리의 코와 이빨은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대상의 특성을 충분이 인식하고 존중하는 '나(박지원)'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669자)

논술 필수 개념어 정리



긍정적 / 순기능	best 1	부정적 / 역기능
개인	best 2	사회
상대성	best 3	절대성
주관성	○○○○○○○○○○	객관성
특수성 / 개별성	○○○○○○○○○○	보편성 / 일반화
다양성 / 다원론	○○○○○○○○○○	획일성 / 일원론
후천적	○○○○○○○○○○	선천적
관찰 / 경험	○○○○○○○○○○	논리 / 추리
귀납법	○○○○○○○○○○	연역법
사실(be) / 현실성	○○○○○○○○○○	당위(should) / 이상
효율성(성장)	○○○○○○○○○○	형평성(분배)
좋음 / 다름	○○○○○○○○○○	옳음 / 틀림
공리주의 / 결과주의(목적론)	○○○○○○○○○○	공정으로서의 정의 / 의무론
문화상대주의 Salad Bowl, Mosaic	○○○○○○○○○○	문화절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사대주의 Tomato soup, Melting Pot

통합사회 1 목차 (2022개정 / 현 고1 적용)

대단원	중단원	주제
Ⅰ 통합적 관점	1.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①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
		②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특징
	2.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와 통합적 관점	①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탐구
		② 통합적 관점을 적용한 탐구 수행
Ⅱ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 행복의 기준과 의미	① 다양한 행복의 기준
		② 행복의 의미에 대한 성찰
	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Ⅲ 자연환경과 인간	1.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① 자연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②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①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점
		②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① 지구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
		②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문제
Ⅳ 문화와 다양성	1. 다양한 문화권과 삶의 방식	① 문화권의 의미와 문화권 형성 요인
		② 세계 문화권의 특징과 비교
	2. 문화 변동과 전통문화	① 문화 변동의 의미와 양상
		②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3.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	① 문화적 차이를 바라보는 태도
		②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문화를 성찰해야 하는 이유
	4.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① 다문화 사회의 형성
		②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해결
Ⅴ 생활공간과 사회	1.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	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공간의 변화
		②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③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2.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	①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②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3.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 변화	① 지역의 공간 변화
		② 지역 문제의 해결방안

통합사회 2 목차 (2022개정 / 현 고1 적용)

대단원	중단원	주제
Ⅰ 인권 보장과 헌법	1.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① 인권의 의미와 변화
		② 현대 사회와 인권의 확장
	2.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①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②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참여 방안
	3.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	①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②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Ⅱ 사회정의와 불평등	1.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①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② 정의의 실질적 기준
	2. 다양한 정의관	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②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3. 사회 불평등과 해결 방안	① 사회 불평등 현상과 그 원인
		②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Ⅲ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1. 자본주의 발전과 경제 체제	①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특징
		② 경제 체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2. 합리적 선택과 경제 주체의 역할	①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
	3.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① 금융 생활의 설계
		② 금융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화
	4. 국제무역과 지속가능발전	① 국제무역의 의미와 필요성
		② 지속가능발전과 국제무역
Ⅳ 세계화와 평화	1.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 해결 방안	① 세계화의 다양한 모습
		②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2. 국제 사회의 갈등과 협력 및 세계 평화	① 평화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의 갈등 및 협력
		②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
	3.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세계 평화	① 남북 분단과 통일의 필요성
		②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평화적 해결
		③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Ⅵ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1. 세계의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	① 세계의 인구 성장과 인구 분포
		② 세계의 인구 구조와 인구 이동
		③ 세계의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
		④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
	2. 에너지 자원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
		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3. 미래 사회의 모습과 삶의 방향	① 미래 사회의 모습
		②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세계시민의 모습

빈출 핵심 키워드

(1) 개인 ↔ 사회 :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사회명목론 ↔ 사회실재론 ★★★★★
(2) 자유. 권리 ↔ 평등, 의무 ★★★
(3) 국가개입⇩ ↔ 국가개입⇧ ★★★★★
(4) 효율성 ↔ 형평성 ★★★★
(5) 주관성 ↔ 객관성 ★★
(6) 이성 ↔ 감정 ★★★
(7) 상대성 ↔ 절대성 ★★★
(8) 특수성, 개별성 ↔ 보편성 ★★★
(9) 다양성 ↔ 획일성 / 다원론 ↔ 일원론 ★★★
(10) 후천적 ↔ 선천적 ★★
(11) 사실 ↔ 당위 : 현실주의 ↔ 이상주의 ★★
(12) 좋음 ↔ 옳음 / 다름 ↔ 틀림 ★★
(13) 문화상대주의 ↔ 문화절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사대주의 ★★★
(14)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 거시적 관점(기능론, 갈등론) ↔ 미시적 관점(상징적 상호작용론) ★★
(15) 사회문화현상의 탐구방법 : 양적연구 ↔ 질적연구 ★
(16) 인간 중심주의 ↔ 생태 중심주의 / 다원적 접근(왈처) ★★★
(17) 분배 정의 : 공리주의(밴담) / 공정으로서의 정의(의무론-롤스) /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노직) ★★★
(18) 민주주의 : 직접 민주주의 / 간접 민주주의 // 참여 - / 심의 - / 숙의 - / 전자 - / 풀뿌리- ★★
(19) 삼권분립 : 행정부 / 사법부 / 입법부 ★★
(20) 정부 형태 : 권력분산의 문제 - 대통령제 / 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
(21) 선거 방식 : 대표성과 비례성의 문제 - 단순다수제 ↔ 비례대표제 ★
(22) [시사] 행복지수 (한국의 사회구조, 개인의 인식 문제) ★★★
(23) [시사] 언론, 공론장(하버마스) (표현의 자유, 자유도와 신뢰도) ★★
(24) [시사] 사회 갈등 (혐오, 젠더갈등, 세대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 ★★★★
(25) [시사] 정치 양극화, 소통문제, 집단극화 (인터넷, SNS, 공론장 - 내적통합/외적분리) ★★★★
(26) [시사] 불평등, 능력주의 (공정한 분배 문제) ★★★★
(27) [시사]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안 모색, 사회적 접근, 낙관론-비관론) ★★★★
(28) [시사] 경제적 상황 (저성장,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
(29) [시사] 기업 윤리 (사회적 책임, 노동자 인권, 윤리적 소비) ★★
(30) [시사] 세계화 ↔ 반세계화 (경제적 양극화, 지역적 블록화, 국제관계와 연관) ★★★
(31) [시사] 국제관계 (신냉전, 자원의 무기화, 전쟁, 정치, 경제, 문화, 지배·종속 or 협력·상생) ★★★★
(32) [시사] 환경문제 (책임윤리-요나스, 지속가능성, 탄소중립, RE100, ESG 경영, 국제적 합의 등) ★★★★★
(33) [시사] 4차 산업, 정보화 (생성형 AI, 양면성, 윤리문제, 책임 범위, 고용, 국가의 역할) ★★★★★★
(34) [시사] 한강 작가 작품의 주제의식 : 구조적, 문화적 폭력과 연관-갈퉁 ★★★★★★★

주요 대학 최근 출제 주제

대학	계열	연도	출제 주제(키워드)
연세대	공통	24 기출	세계시민주의
		23 기출	순수기술과 응용기술
		22 기출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 (보상과 동기)
		21 기출1	책임소재 : 개인 ↔ 사회
		21 기출2	노동과 여가
		21 모의	결정론과 자유의지
		20 기출1	합리성 ↔ 도덕성
		20 기출2	소문의 확산 (가짜 뉴스)
		20 모의	리터러시 (문자와 구술)
고려대	공통	25 모의1	사회 불평등 / 경제 성장
		25 모의2	자원 문제와 해결 / 국가 통치 원리 (처벌과 공포)
		16 기출	공동체와 여론 형성
		16 모의	사회적 합의와 법
		15 기출1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15 기출2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15 모의	사회발전 / 관행과 사회변화
서강대	경영 경제	25 모의	지역화폐이 장단점
		24 기출	소수자 차별 / 합리적 선택
		24 모의	정보비대칭 / 스태그플레이션 / 공급곡선
		23 기출	개발-보존 / 비교우위
		23 모의	리니언시 제도 : 국가개입 방식
		22 기출	혁신의 문제와 해결방안 / 공무원 부패와 해결방안
		22 모의	소득불평등 / 환경문제해결
		21 기출	인과관계-상관관계 / 경제적 효율성
		21 모의	총수요 증가정책 : 찬성↔반대 / 정부의 시장 개입 : 찬성↔반대
		20 기출	경제적 의사결정의 한계와 해결방안 / 다국적 기업의 양면성
		20 모의	무상급식 찬반 근거 : 효율성↔공정성 / 최저임금제 : 긍정적↔부정적
		19 기출	성장↔분배 / 세계화 / 다국적 기업의 역할
		19 모의	소득주도성장론 : 부정적 효과
		18 기출	최저임금제 : 부정적 효과 / 공적연금 확대 : 찬성↔반대
	인문 사회	25 모의	사회 갈등
		24 기출	SNS 활용의 양면성 / 소수자 차별
		24 모의	문화상대주의 / 행복 / 집단극화
		23 기출	불평등 / 고립
		23 모의	대립 갈등의 원인 및 해결방안
		22 기출	잊힐 권리 / 공적영역-사적 영역
		22 모의	표준어 / 코로나(혐오문화)
		21 기출	서열화와 차별 / 추론적 읽기(언론문제)
		21 모의	근대화와 민주주의 / 정보기술의 양면성
		20 기출	언어와 사고의 관계 / 혐오문화의 원인과 해결책
		20 모의	법치주의 : 절대성↔상대성 / 문화재 거취 : 예술↔정치
		19 기출	사실(be)↔당위(should) / 개인윤리↔사회윤리
		19 모의	미래사회 : 로봇과 인간의 관계
		18 기출	합리성의 제한 : 개인↔사회 / 삶의 태도 : 개인↔사회

대학	계열	연도	출제 주제(키워드)
성균관대	공통	25 모의	세계화 : 긍정적 입장(순기능) ⇔ 부정적 입장(역기능)
		24 기출1	인간 사회 운용 원칙 : 의무론적 ⇔ 결과론적(공리주의)
		24 기출2	삶의 가치 판단 기준 : 개인의 자유와 권리 ⇔ 사회적 의무와 책임
		24 모의	불평등 : 긍정적 입장 ⇔ 부정적 입장
		23 기출1	예술 : 심미주의 ⇔ 도덕주의
		23 기출2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 : 경쟁 ⇔ 협력
		23 모의1	인간 행위의 기초 : 이성 ⇔ 감정
		23 모의2	정보통신기술 발전 : 긍정적 입장 ⇔ 부정적 입장
		22 기출1	시민적 자유와 책임 :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22 기출2	인간행위 판단 기준 : 공리주의(결과) ⇔ 의무론(동기)
		22 기출3	인간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 것인가 : 현실주의 ⇔ 이상주의
		22 모의	국가개입 : 긍정적 입장 ⇔ 부정적 입장
		21 기출1	사회문화현상 : 절대·보편 ⇔ 상대·특수
		21 기출2	환경윤리 :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21 기출3	정보사회의 윤리문제 : 공리주의 ⇔ 의무론
		21 모의	표현의 자유 제한 : 긍정적 입장 ⇔ 부정적 입장
		20 기출1	주거 혼합 정책 : 긍정적 입장 ⇔ 부정적 입장
		20 기출2	시장의 확대 : 긍정적 입장 ⇔ 부정적 입장
		20 모의	소수자우대정책 : 긍정적↔부정적
		19 기출1	국가 개입 : 최소국가(작은 정부)↔재분배국가(큰 정부)
		19 기출2	법 : 형식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
		19 모의	교육의 기능 : 긍(순기능)↔부(역기능)
		18 기출1	인간행위의 특징 : 합리성↔비합리성
		18 기출2	사회정의 : 공리주의↔공정으로서의 정의
		18 기출3	대중문화 : 긍(순기능)↔부(역기능)
한양대	상경계	25 모의	폭력
		24 기출	SNS 양면성
		24 모의	AI의 활용
		23 기출	인간의 합리성
		23 모의	정보격차
		22 기출	잠김 현상
		22 모의	중앙집권적 권력의 양면성
		21 기출	AI의 면접 시스템
	인문계	25 모의	대중문화
		24 기출1	무위와 인위
		24 기출2	사회계약론
		24 모의	새로운 연대와 진정한 소통
		23 기출1	정보를 대하는 태도
		23 기출2	압도의 원리
		23 모의	윤리와 정체성
		22 기출1	리터러시 격차
		22 기출2	민영화의 문제

대학	계열	연도	출제 주제(키워드)
이화여대	인문 1	25 모의	동질성-이질성 / 역사 기술 / 본질과 형상
		24 기출	세계시민주의 / 인지과정 / 실존주의
		24 모의	덕치-법치 / 자율-타율 / 권리양도
		23 기출	비물질화 / 선-악 / 다양성-획일성
		23 모의	사회 정체감 / 인지 활동 / 대상을 대하는 태도
		22 기출	작품 해석 / 기술 발전
		22 모의	의사소통 / 비판적 읽기 / 동물복지
		21 기출	감시와 복종 / 관점의 차이 / 사회적 사실
		21 모의	여유 / 인간의 책임 / 의사소통
		20 기출	공정무역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20 모의	‘나’ 이해 : 상대성↔절대성 / 퓨전(융합)과 다양성 / 타문화 이해방식
		19 기출	인간존재와 예술창작 / 예술세계와 세계관 / 이야기의 가치와 의미
		19 모의	시간 : 상대성↔절대성 / 양적↔질적 / 인간의 노동 : 긍정적↔부정적
		18 기출	문학 작품의 감상 : 독자와 작가의 소통, 교감
	인문 2	25 모의	의로운 전쟁 / 국제관계 / 회귀분석 / 환율
		24 기출	소비의 특성 / 생태학적 오류 / 물가
		24 모의	지도방식 / 불평등 / 예측과 실제
		23 기출	현실주의 / 국제평화 / 정보 해석
		23 모의	사회 현상 평가 / 통계 자료 분석
		22 기출	대상 분석 관점 / 국가 위기 극복
		22 모의	역사관 / 정부개입
		21 기출	경쟁 / 인간-자연 / SNS
		21 모의	인간과 자연 / 지속 가능성
		20 기출	과학기술의 윤리적 책임 / 인간과 자연
		20 모의	개인의 자유 보장 / 인간의 속성 : 능동적↔수동적
		19 기출	매체를 통한 정보전달 / 이상적인 소통
		19 모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 : 우월↔대등 / 환경문제해결 : 절제↔기술개발
		18 기출	국가의 역할 : 개입↑↔개입↓
중앙대	공통	25 모의	두려움의 이유와 극복 방법
		24 기출1	비교를 통한 차이점과 깨달음
		24 기출2	난관과 음악의 역할
		24 모의	거짓 언행의 이유와 결과
		23 기출1	고민과 새로운 인식
		23 기출2	표현의 변화와 감정
		23 모의	웃음의 계기와 감정
		22 기출1	생각 전환의 계기와 깨달음
		22 기출2	선물을 주고받은 이유와 변화
		22 기출3	연결의 방식과 결과
		22 모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와 변화
		21 기출1	의사결정의 이우와 결과
		21 기출2	‘정’의 이유와 감정
		21 기출3	돌봄의 동기와 결과
		21 모의	상실의 원인과 결과
		20 기출1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
		20 기출2	반복에 나타난 ‘특징’과 반복의 ‘결과’
		20 모의	기술사용의 결과와 원인
		19 기출1	고향의 의미와 원인
		19 기출2	상호작용의 방식과 결과
		19 모의	노인 문제
		18 기출1	새로움 창출, 창조성
		18 기출2	정보의 생산(여행)

대학	계열	연도	출제 주제(키워드)
경희대	인문 체능	25 모의	새말의 양면성 / 디지털 ↔ 아날로그
		24 기출	이성 ↔ 감정 / 공감
		23 기출	교육 : 공적기능 ↔ 사적기능
		23 기출	대중문화 : 긍정적↔부정적
		23 모의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합리적소비 ↔ 윤리적소비
		22 기출	자기중심적사고 ↔ 타자중심적사고 / 이상주의 ↔ 현실주의
		22 모의	개별성 ↔ 보편성
		21 기출	일방적 ↔ 양방향적
		21 모의	문화 사대주의 ↔ 문화 상대주의
		20 기출	지속 가능한 성장 : 긍정적↔부정적
		20 모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 : 긍정적↔부정적
		19 기출	예술에 대한 태도 : 절대적↔상대적 / 목적↔수단
		19 모의	문화변동 : 동화 · 공존 · 융합 / 보편성↔특수성
		18 기출	정치활동 : 현실주의↔이상주의 / 상대성↔절대성
	사회	25 모의	빈곤 문제 해결 : 개인↔사회
		24 기출	인간중심주의↔생태중심주의
		24 모의	행복 : 물질 ↔ 비물질
		23 기출1	사회문제 해결의 시민참여 : 긍정적↔부정적
		23 기출2	사회문화 현상 파악 관점 : 기능론↔갈등론
		23 모의	사회문제해결 : 국가의 개입↑↔ 국가의 개입↓
		22 기출1	우선순위 : 개인, 개체 ↔ 공동체, 전체
		22 기출2	분배적 정의 : 필요에 따른 분배 ↔ 능력애 따른 분배
		22 모의	변화 발전 : 외부영향O ↔ 외부영향X
		21 기출1	갈등해소 : 합의 소통 ↔ 일방 강제
		21 기출2	사회적 관계 : 분리 ↔ 통합
		21 모의	시간에 대한 관점 : 장기↔단기
		20 기출1	불평등 : 기능론↔갈등론
		20 기출2	사회정의 : 공정으로서의 정의↔소유권리로서의 정의
		20 모의	사회과학 연구방법 : 양적연구↔질적연구
		19 기출1	일탈의 원인 : 아노미↔낙인
		19 기출2	개인과 사회 : 명목론↔실재론
		19 모의	개인의 차이 : 수평↔수직 / 상대성↔절대성
		18 기출1	사회화(개인-사회 관계) : 기능론/ 갈등론 / 상징적 상호작용론
		18 기출2	분배문제 : 정부 규제↔시장 자율

대학	계열	연도	출제 주제(키워드)
한국 외대	공통	25 모의	규제 : 긍정적 ↔ 부정적
		24 기출 1	변화 : 긍정적 ↔ 부정적
		24 기출 2	무조건적 관용 ↔ 조건적, 선택적 관용
		24 기출 3	상대적 원칙 ↔ 절대적 원칙
		24 기출 4	부분 ↔ 전체
		23 기출 1	상대적 평등 ↔ 절대적 평등
		23 기출 2	생산적 갈등 ↔ 소모적 갈등
		23 기출 3	단일 정체성 ↔ 다중 정체성
		23 기출 4	이상주의 ↔ 현실주의
		23 모의	다양성 ↔ 단일성
		22 기출1	수(數)의 세계관 : 보존 ↔ 성장
		22 기출2	지식 정보 : 독점 ↔ 공유
		22 기출3	행위의 동기와 목적 : 공익 ↔ 사익
		22 기출4	인물유형 : 햄릿형 ↔ 돈키호테형
		22 모의	지식생산 의사결정 주체 : 전문가↔비전문가
		21 기출1	의사결정 : 효율성 ↔ 안정성
		21 기출2	결정 기준 : 보편 ↔ 선별
		21 기출3	전통과 창조
		21 기출4	갈등해결 : 법 규정 ↔ 대화 협상
		21 기출5	선택 : 보존 ↔ 성장
		21 기출6	개방과 폐쇄
		21 모의	국제 사회 : 세계시민주의↔국가중심주의
		20 기출1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 : 융복합↔전문화
		20 기출2	인간 심리 : 자기애↔이타심
		20 기출3	변화 : 혁신↔점진
		20 기출4	법 또는 규칙을 엄격한 적용 : 좋은 결과↔나쁜 결과
		20 모의	의사결정 기준 : 개인적↔사회적
		19 기출1	리더십의 유형 : 위임형↔지시형
		19 기출2	개인의 자유 : 극대화↔규제
		19 기출3	의사결정 기준 : 형평성↔효율성
		19 기출4	새로운 것 : 수용↔거부
		19 모의	변화 유인 방식 : 처벌(손실)↔보상(이익)
건국대	공통	25 모의	실존주의와 AI시대 인간의 삶
		25 모의(자전)	정보화 시대의 편향성
		24 기출	고정관념과 사회 갈등
		25 모의	인간본성과 인터넷
		23 기출	속도와 행복 : 자기중심 ↔ 타자중심
		23 모의	사회자본 : 다양성 ↔ 획일성
		22 기출	인간본성 : 이기심 ↔ 이타심
		22 모의	행복 : 개인 ↔ 사회
		21 기출	자기중심적사고 ↔ 타자중심적사고
		21 모의	주관 ↔ 객관
		20 기출	구조의 제약 → 인간의 행위
		20 모의	인간행동 : 선천적↔후천적
		19 기출	대상 이해 : 절대적↔상대적
		19 모의	부(사치)의 양면성
		18 기출	공존 : 경쟁↔협력

대학	계열	연도	출제 주제(키워드)
동국대	공통	25 모의	인간중심주의↔생태중심주의 / 환경과 기업 / 동물에 대한 도덕적 관점
		24 기출1	차별과 편견 / 도덕적 해이 / 갈등과 폭력
		24 기출2	지속가능한 미래 / 전통윤리↔현대윤리 / 자유주의↔공동체주의
		24 모의	사회화 / 노동문제 / 자유주의↔공동체주의
		23 기출1	줄임말, 신조어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복지국가-세계시민주의
		23 기출2	일탈 / 공공재 / 담론윤리
		23 모의	자유무역-보호무역 / 대중의 정치 참여 / 도덕적 판단
		22 기출1	현실주의-자유주의 / 외부효과 / 도덕적 판단
		22 기출2	매체문해력 / 인간-기술 관계 / 책의 수용 방식
		22 모의	언어와 지각 / 불평등 / 다양성
		21 기출1	한글맞춤법 / 자살 / 4차 산업혁명 - 정부개입
		21 기출2	국제분쟁 / 재정정책, 통화정책 / 윤리적 성찰
		21 모의	다문화주의 / 사회정의 : 롤스↔노직 / 공정무역
		20 기출1	이상↔현실 / 생태중심주의↔인간중심주의 / 실천윤리학
		20 기출2	문화상대주의 / 인간존엄성 / 다수결제도 장단점
		20 모의	인간↔동물 / 소득재분배정책 / 계층구조변화 / 인물 성격파악 : 개인적↔사회적
		19 기출1	환경문제 : 원인-해결책 / 최저임금제 / 언어와 사고의 관계
		19 기출2	문학 해석 방법 / 성별분업과 차별 / 도덕적 선 : 사익↔공익
		19 모의	복지 : 보편•선별•생산 / 세계화 : 긍↔부 / 과학기술의 양면성 : 긍↔부
		18 기출1	미래 기술 사회 : 긍↔부 / 지속 가능한 발전 : 현실주의•이상주의•합리주의
		18 기출2	문화 : 상대성↔절대성 / 경제 : 시장실패→정부개입 / 공감, 감동 : 주관↔객관
숙명여대	공통	25 모의	평균의 오류 / 차별과 권력관계
		24 기출1	플랫폼 노동자 문제 / 동물복지론-동물권리론
		24 기출2	편견과 차별 / 인간과 로봇의 관계
		24 모의	내집단-외집단 / 언더도그마
		23 기출1	기후위기 / 돌봄민주주의
		23 기출2	경제적-사회적 합리성 / 다양성-획일성
		23 모의	능력주의 쿠데타 / 주술과 비유
		22 기출1	통계자료 분석 / 시장의 역할과 한계
		22 기출2	지구온난화 / 언어와 사고
		22 모의	낙인이론 / 인간중심주의
		21 기출1	인간중심주의 / 공론화
		21 기출2	차별 / 세계화
		21 모의	디지털 경제의 양면성 / 혐오 문화
		20 기출	배려와 존중 / 소극적 자유↔적극적 자유
		20 모의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 / 소확행의 확산
		19 기출	포퓰리즘•심의민주주의 / 신화↔과학
		19 모의	과학자의 윤리와 시민 사회의 책임 / 언어와 정치권력
		18 기출	디지털 기술과 인간 기억의 문제 / 소수자 문제(다양성) / 성불평등 / 절차적 공정성